

고교 입학 첫 걸음, 차분한 준비 돕는다

전북교육청, 21일 예비 고1 대상 고교생활·대입 길잡이 설명회 개최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의 대입 준비를 돕는다.

전북교육청은 오는 21일 분청 창조 미래 시청각실에서 예비 고등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고교생활·대입 길잡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이 설명회는 2028학년도 대입제도 개편과 고교학점제 적용에 따른 고교생활과 학부모의 불안과 혼란을 해소하

고 고교 입학 초기부터 진로·학업·대입을 연계한 체계적인 준비 방향을 안내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고등학교 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 △고교학점제와 과목 선택의 중요성 △2028 대입제도 개편 방향 △고교입학초기 단계에서 준비해야 할 학업·진로 설계 방안 등으로 구성됐다.

고등학교에서 진학지도를 담당하며, 대입 상담 경험이 풍부한 전일고등학교

교 김훈 교사가 강사로 참여해 공신력 있는 대입 자료를 바탕으로 실제 사례 중심의 설명을 진행할 예정이다.

전북교육청은 이번 설명회를 통해 예비 고1 학생들이 고교생활에 안정적으로 적응하고, 학부모가 변화하는 대입 환경을 정확히 이해함으로써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준비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설명회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은 오는 14일 오후 5시까지 진로진학센터

누리집(<https://www.jbe.go.kr/jinro>)을 통해 사전 신청하면 된다. 참석자 전원에게는 대입 관련 자료집 1부를 제공할 예정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설명회를 통해 학생들이 고등학교 생활을 차분하게 준비하고,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맞는 학업 계획을 세우는 데 길잡이가 되길 바란다"며 "우리 교육청은 앞으로도 공교육 중심의 진로진학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학생과 학부모가 학교를 믿고 자신에게 맞는 대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국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 전북대학교 지회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 (사진=전북대학교 제공)

대학 공공성 수호 새출발

전북대 교수노조 공식 출범 초대 지회장에 천성근 교수

전북대학교에 교수 노동조합이 공식 출범했다. 전북국립대학교교수노동조합(이하 국교조) 전북대학교지회는 지난달 20일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활동에 들어갔다고 2일 밝혔다.

국교조 전북대 지회는 지난해 4월경부터 전북대학교 교수회를 중심으로 창립 준비에 착수해 약 9개월간의 논의와 절차를 거쳐 이날 공식 출범했다. 이로써 전북대는 국교조 산하 전국 17번째 지회가 됐으며, 국립대학교 교수의 권익 보호와 대학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게 됐다.

이날 창립총회에는 전북대 소속 조합원 17명과 국교조 최인철 위원장(경북대 영어교육과), 이준우 부위원장(한밭대 경영회계학과), 정기용 사무총장(경북대 수학교육과) 등이 참석해 전북대 지회의 출범을 축하했다.

초대 지회장은 천성근 교수(전북대 의과대학 의학과)가 선출됐고, 감사에는 신현진 교수(예술대학 음악과)가 선출됐다. 임기는 2028년 1월 19일까지 2년이다.

국교조 전북대학교지회는 이날 채택한 창립 선언문을 통해 △교수 노동권 수호 △민주적 대학 운영 △전국국립대학교 교수들과의 연대 등을 공식 천명했다.

천성근 지회장은 취임 인사를 통해 "교수의 노동자로서의 권리가 존중받는 대학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며 "대학 운영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교수의 목소리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소통과 협의의 창구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학문과 교육의 자율성 대학의 공공성을 지키는 데 있어 원칙은 분명히 하되, 대립보다는 합리적 대화와 연대를 우선하는 지회를 만들어 가겠다"며 "조합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참여와 연대가 지회의 가장 큰 힘"이라고 강조했다.

/김재훈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노력도 자체 평가 우수기관(사진 왼쪽)'과 'MZ 청렴 서포터스 활동 우수팀(사진 오른쪽)'을 시상했다.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노력도 자체 평가 우수기관(사진 왼쪽)'과 'MZ 청렴 서포터스 활동 우수팀(사진 오른쪽)'을 시상했다.

청렴문화 확산 동참 우수기관·우수팀 시상 |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 6곳·MZ 청렴 서포터스 우수 4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일, 5층 회의실에서 '2025년 청렴노력도 자체 평가 우수기관'과 'MZ 청렴 서포터스 활동 우수팀'을 시상했다.

전북교육청은 2024년부터 '교육지원청 및 직속기관 자체 청렴도 평가'를 시행해 기관의 책무성 강화와 자율적인 부패추방분야 개선 노력을 유도하고, 'MZ 청렴 서포터스'를 운영해 미래세대와의 소통 및 공감대 형성을 위

해 노력해왔다.

이번 시상은 조직 전반에 청렴 문화 확산과 청렴 시책 추진에 우수한 역량을 보여준 기관(팀)을 표창해 청렴 활동 참여를 보다 활성화하고 청렴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청렴노력도 평가 우수기관은 6개 기관이다. 교육지원청에서는 최우수 전주교육지원청, 우수 부안·정읍교육지원청, 직속기관에서는 최우수 군산학

생교육문화관, 우수 교직원수련원·김제학생교육문화관이다.

MZ 청렴 서포터스 활동 우수팀은 △최우수 톨린A-Z(진주이중초 교사 장우원 외 5명) △우수 상도외무지개(동신초 주무관 장상도 외 7명) △장려 청렴레인저스(미래교육연구원 주무관 최지훈 외 4명), B청렴한디스(전주진라초 교사 채나은 외 4명) 등 4개 팀이다.

유정기 교육감 권한대행은 "수상 기관과 팀들이 보여준 우수 사례가 밑거름이 돼 교육 현장 전체의 청렴 수준을 한 단계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청렴도 향상을 위해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하고,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해 공감할 수 있는 청렴 문화를 확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국립군산대 권봉오 교수 새만금위 민간위원 위촉



국립군산대학교는 2일 해양생물 자원학과 권봉오 교수가 '제9기 새만금위원회 민간위원'으로 위촉됐다고 밝혔다.

새만금위원회는 새만금사업법에 따라 새만금 기본계획 등 새만금사업의 중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지난 2009년 1월 최초 발족 이후 이번이 이혼 번째 구성이다.

특히, 제9기 위원회는 새만금 사업 기본계획 재수립, 재생에너지 관련 현안 등 핵심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며, 이번 구성에서는 '환경·해양' 분야 위원 확대 등 지속가능성 강화를 위한 보강이 이뤄졌다.

권봉오 교수는 위원으로서 새만금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환경 관리, 해양 생태 보전 등과 관련된 정책 논의에 전문가 자문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그 동안 권 교수는 국립군산대 새만금환경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으며, 새만금 및 주변 해역의 해양환경 변화와 생태계 관리 방안을 연구하면서 20여 편의 학술논문을 발표하는 등 연구 성과를 축적해 왔다.

또한 새만금 주변 해역 해양환경 및 생태계 관리 연구개발, 새만금 외해역 수산업 피해 현황 조사 및 정책 방안 연구 등을 수행하며 현장 기반 자료를 축적해 왔고, 올해에는 새만금도 방류수 영향 구역 해양환경 조사를 수행하는 등 새만금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국립군산대 권봉오 교수는 "새만금이 지역과 국가의 미래 성장거점으로 발전하는 과정에서 환경·해양 분야의 과학적 근거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성실히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권신=김민호 기자

전주대, 2026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 발표

주시·정시 신입생 희망자 전원 기숙사 배정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는 2일 오전 10시 2026학년도 정시모집 최초합격자를 발표했다. 최초합격자는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개별 확인할 수 있으며, 등록금 납부는 3일 오전 9시부터 5일 오후 5시까지 진행된다.

전주대학교는 신입생들의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위해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먼저 수시·정시 신입생 희망자 전원에게 기숙사 100% 배정해 주거 부담을 해소하고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한다. 또한 1학년 2학기부터 희망 학과로 전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학생들이

대학 생활을 경험하며 자신의 적성과 진로를 재발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아울러 전주대학교는 기록교과 적체성을 바탕으로 AI와 디지털 융복합 역량을 갖춘 전인적 인재를 양성하며, 지역을 넘어 세계로 뻗어나가는 대체 불가능한 대학'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이를 위해 2026학년도부터 시용합교육 강화 등 미래사회에 대응하는 실용교육을 대폭 확대하며, 신입생 개개인의 성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정태연 입학처장은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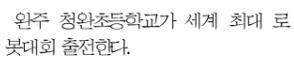
주대학교는 입시 중심의 경쟁을 넘어, 학생 한 명 한 명이 자신의 꿈을 실현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입학하는 신입생들이 미래 사회의 주역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주대학교는 6일부터 12일까지 정시모집 총원 합격자 발표가 순차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최종 등록 절차는 13일까지 마무리된다. 이어 미충원 단과대학·학과를 대상으로 한 추가모집은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주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완주 청완초, 2025-2026 퍼스트 레고 리그 챔피언상 수상

미국서 열리는 세계 최대 로봇대회 출전자격 획득 15년 만에 공교육팀 종합 1위



완주 청완초등학교가 세계 최대 로봇대회 출전한다.

청완초등학교(교장 김재근)는 지난 달 29일 서울에서 개최된 '2025-2026 퍼스트 레고 리그(FIRST LEGO League, FLL) 코리아 챔피언십'에서 에버그린 팀이 종합 1위인 챔피언상을 수상, FLL 리그대회 중 가장 큰 규모인 휴스턴 세계대회 출전 자격을 얻었다고 2일 밝혔다.

전국의 초·중·고 학생들이 참여해 로봇 프로그래밍과 창의적 문제해결 능력을 겨루는 이 대회에서 초등학교 4~5학년으로 구성된 에버그린팀이 중·고등학생들과 겨워 정상에 오른 것이다.

특히 공교육 팀이 챔피언상을 차지한 것은 15년만으로 단순한 우승을 넘어 공교육의 성과를 보여준 것으로

의미를 더한다.

에버그린팀은 혁신프로젝트, 로봇디자인, 로봇게임 등 모든 부문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거두며 심사위원들의 극찬을 받았다.

학생들이 직접 설계한 로봇의 정교한 움직임과 창의적인 문제해결 능력은 보는 이들을 감탄하게 만들었다.

이 같은 성과 뒤에는 이우진·운영범 지도교사의 체계적인 준비 과정이 있었다. 이들 교사는 그동안 축적해온 교수학습 역량을 바탕으로 여러 차례 세계대회 출전과 우수한 성적을 거두어왔다.

FLL Challenge 세계대회는 오는 4월 말 미국 휴스턴에서 개최되며, 전 세

계 100여 개국에서 선발된 160여개 팀이 참가해 역량을 겨룰 예정이다.

/원주=염재복 기자

지역중심 특색 교육과정 안착

전북교육청,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 역량 강화 연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현장 지원 체계를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2일 전주비전대학교 세미나실에서 교육지원청 담당 장학사와 지원단 60여 명을 대상으로 '2026년 중학교 학교자율시간·자유학기 역량 강화 연수'를 운영했다.

이 연수는 교육지원청과 지원단이 지역 특색성과 학교 여건을 반영한 '지역 중심 특색 교육과정' 설계를 주도적으로 지원하고, 교육 분권과 학교 자율화 실현을 목적으로 마련됐다.

연수에서는 △학교자율시간 운영 지원 위한 전문성 함양 △자유학기제 컨설팅 역량 강화 △지역 중심 특색 교육과정 운영 지원 방안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다루었다.

특히 교육지원청이 단위 학교를 밀착 지원할 수 있도록 담당자의 전문성을 높이고, 학교자율시간과 자유학기가 지역별 특색을 살린 창의적인 교육 과정을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

또한 지역별 분임 토의를 통해 학교들의 교육과정 운영 현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학교가 처한 어려움을 해소할 구체적인 지원 전략을 수립하고자 했다.

교육지원청과 지원단은 향후 학교의 교육과정 재구성성을 돕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새로운 과목을 개설·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행정적·교육적 부담을 덜어주는 밀착형 멘토로서 새 학기 교육과정 준비를 빈틈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최은이 중등교육과장은 "이번 연수는 각 학교가 획일적인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학생의 필요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설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며 "단위 학교가 더 자율적이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지원청의 역량을 강화하고 권한을 위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대-대구한의대, 반려동물 산업 인애 양성 MOU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미래융합대학 반려동물학과와 대구한의대학교(총장 변창훈) 반려동물산업학부가 지난달 30일 전주대학교에서 반려동물 산업 및 교육 분야 인재 양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나형철 전주대 반려동물산업학과장, 송광영 대구한의대 반려동물산업학과장을 비롯한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상호 협력 관계 구축 및 공동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양 대학은 △현장실습 및 교육과정의 공동 개발과 운영 △교육 정보 및 자료의 상호 교환 △공동 교육 프로젝트 운영 △기타 상호 발전을 위한 협력 등에 대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특히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과 공동 연구를 통해 반려동물 산업 현장에서 즉



시 활용 가능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전주대학교 나형철 반려동물학과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학과 학생들에게 반려동물 산업 및 교육 분야에서 실무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은 물론, 지역사회와 연계한 현장 중심 교육 모델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김재훈 기자